

베트남

2009년 성장률은 5.3%로 다소 둔화 예상

- >> 2008년 성장률은 전년의 8.5%보다 하락한 6.2%로 추정되며, 2009년 성장률은 글로벌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5.3%에 그칠 전망
- >> 관료주의 행정, 열악한 사회 인프라, 지역 발전 불균형 등이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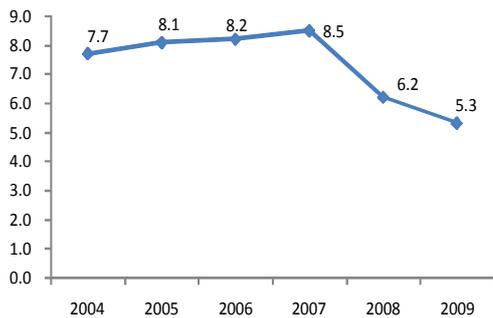
❖ 베트남의 주요 경제지표 전망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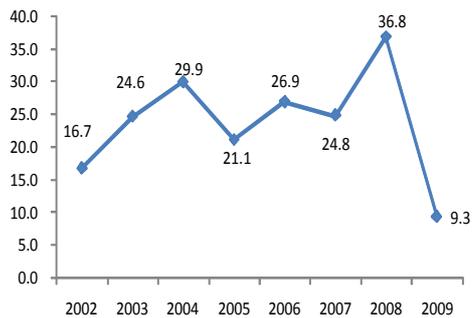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
실질GDP성장률	8.5	6.2	5.3
산업생산증가율	17.0	15.5	14.5
소비자물가상승률(평균)	9.0	24.9	14.0
재정수지(% of GDP)	-1.6	-1.7	-2.3
경상수지(10억 달러)	-7.0	-11.2	-7.5
경상수지(% of GDP)	-9.9	-13.6	-9.9
수출(10억달러)	48.6	66.5	72.7
수입(10억달러)	58.9	80.3	83.9
환율(동/US\$, 평균)	16,179	16,551	16,985

주 : 2008년은 추정치, 2009년은 전망치
 자료 : EIU

[경제성장률 전망(%)]



[수출증가율 전망(%)]



2008년 6.2% 성장 전망

■ 국내정치 동향

국내 정치상황은 대체적으로 안정적이지만, 임금 상승이 물가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함에 따라 시위가 가능성이 고조되고 있음. 특히 현 경제상황이 소득의 대부분을 식료품 구입에 쓰는 저소득층에 불리하게 전개되면서 정부여당은 사회복지부문에 더 많은 예산을 집행할 것으로 예상됨

■ 성장률 : 2007년보다 다소 하락할 전망

베트남은 1986년 ‘도이모이’ 정책을 채택한 이후 적극적인 개방을 추진하며, 저임의 노동력과 인구 8,500만명의 내수시장 잠재력을 바탕으로 지난 수년간 빠르게 성장해 왔지만, 주요 교역상대국인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 경기가 침체되고 물가상승률이 20%대에 이르면서 2008년 경제성장률은 전년을 하회할 것으로 보임

물가 상승률 24.9% 전망

■ 물가 : 고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경제불안 심화

베트남 통계청(GSO)에 따르면, 11월달 CPI(소비자물가지수)가 전달대비 0.76%p 하락하여 2개월째 하락세를 보였으나 금년 11개월 간 평균 CPI는 작년 11월 기준 23.25% 증가로 여전히 높은 증가세를 보임. 그러나 더 근본적인 물가상승의 원인은 베트남 Dong화의 환율이 미 달러화에 실질적으로 연동(peg)되어 있어 달러표시 수입물가 상승의 효과가 거의 그대로 베트남 물가에 전가되고 있기 때문임

■ 금리 : 고금리정책 유지 전망

베트남 중앙은행(SBV)는 2008년 상반기 고금리 기조를 유지해 대출한도를 감소시켰으며,

국내 통화량 환수를 위해 금융기관들에 대해 20.3조 동(약 13억 달러)에 이르는 재무부 채권 (Treasury Bill)을 발행하였음. 하지만 인플레이 압력이 감소됨에 따라 은행들의 지급준비금에 이자를 지급함으로써 유동성 축소를 다소 완화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음. 베트남 중앙은행은 경기침체를 차단하기 위해 11월 20일 기준금리를 12%에서 11%로 인하했음

수출입 모두 큰 신장세 기록

■ 무역 : 무역적자 심화

베트남의 주요 수출 대상국인 미국의 경기둔화에도 불구하고 수출 대상국을 중국, 호주 등으로 다변화하면서 수출이 지속적으로 증대

그러나 상품수지 적자가 증가하고 있어 경제불안 요인이 되고 있음. 금년 상반기중 상품수지 적자는 외국인 투자급증으로 인한 시설재 수입 증가, 원유 수출 축소, 쌀 수출 억제 등에 기인한 것으로 조사됨. 2008년 상품수지 적자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3.6%에 이룸

■ 외환 보유액

베트남의 외환보유액은 상품수지 적자 확대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투자 및 대외원조 유입 증가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2007년말 기준 대외채무 비중이 GDP 대비 30%선에 그치고 있어 비교적 양호한 수준. 2008년 상반기 기준 외국인 직접 투자는 8,676건, 4,221백만달러에 달함

2009년 5.3% 성장 예상

■ 경제성장 전망

2009년 베트남 경제성장률은 인플레이션 압력이 잔존하고 민간소비 증가율이 둔화됨에 따라 지난 10년간 가장 낮은 5.3%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하지만 외국인 투자자들은 베트남의 중장기 경제를 낙관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투자금액은 증가할 것으로 보임

수출증가율은 한자리수로 둔화

■ 물가 : 14.0% 상승률 전망

2008년 9월 소비자물가는 전년동기비 40%가까이 오른 식료품 가격 상승으로 인해 27.9% 상승했음. 내년에도 고금리 정책 유지가 예상되고, 원자재 가격이 안정을 찾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2009년 물가상승은 다소 둔화된 14%의 두자리수 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보임

■ 대외교역 : 의류, 농산물 수출호조 예상

상품수지 적자는 2009-2010년까지 지속될 것으로 보임. 주요 선진국 시장이 침체되면서 수출도 고전할 것으로 보이지만 저렴한 의류제품과 농산물이 내년에도 호조세를 지속하면서 수출 시장 다변화에도 성공할 것으로 전망됨. 그러나 최근 원자재가격 동향을 감안할 때 원유 수출은 2010년경에 상승세를 타기 전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상. 2009년에도 외국인 투자금액이 증가함에 따라 자본재 수입도 동반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소비재 수입은 향후 2년간 감소할 것으로 보임

행정비용 과다, 지역 불균형

■ 관료주의로 인해 행정 소요비용 과다

투자과 관련된 인허가 관련 비용이 상당하며, 실제 조사에 따르면 대부분의 베트남 기업들은 매년 1,959시간을 세금 관련 행정업무에 쓰는 것으로 나타나 행정 개혁의 시급성을 시사. 토지사용 계약과 공장건축 허가 등의 업무가 이원화 되어 있어 공장 가동에 어려움이 많음

■ 열악한 사회 인프라

철도, 항만, 도로, 전력 등 기본적인 사회 인프라가 열악해 경제 성장의 걸림돌이 되고 있음. 호치민시는 9월 총 면적 2천 200ha에 이르는 신설공단을 구찌에 3개, 빈짠과 흑몬에 각각 1개씩 총 5개를 조성한다고 발표

■ 국영기업 민영화 추진

공기업은 베트남 GDP의 36%, 정부 예산의 40%를 차지하는 경제의 가장 중요한 주체이지만 부실한 경영실적으로 베트남 정부는 민영화를 추진중. 공기업 민영화는 도이모이 정책에 힘입어 1992년부터 시행되었으며 2008년 상반기 기준 공기업 총수는 1720개로 축소. 2007~2010년까지 950개 공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이 계획됐으나 2008년 1분기까지 115개 공기업에 대한 구조조정만 완료된 상태. 특히 대형 공기업의 경우 정부에서 신중하게 추진하고 있어 본래 계획보다 지연될 가능성이 높음